

한국 중년성인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구조와 문항정보

안 정 신¹⁾

한 경 혜²⁾

차 승 은³⁾

Center for Family Policy & Research
i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를 살펴보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성공적인 중년기 발달요인 탐색: 정신건강 및 일/가족 라이프코스의 한미간 비교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자료인 30-60세의 중년기 남녀 1,666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미국인들을 위해 개발된Carol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이용하여 한국인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의 정보의 양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증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결과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은 Ryff의 모델에 낮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둘째, 문항반응이론 (Item Response Theory) 분석 결과 전체 18개의 문항중 10개만이 적절한 양의 정보를 주고 나머지 8개의 문항들은 아주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Ryff의 여섯개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하위차원들 중 네개만이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측정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심리적 복지감, 척도, 중년기

1) Center for Family Policy & Research i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2) 교신저자 :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E-mail : ghhan@snu.ac.kr

3)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의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삶의 조건과 상황 같은 객관적인 조건들을 알아보거나(Dudley Duncan, 1969, 김명소 외(2001) 에서 재인용),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한 의미와 경험 그리고 정서 등 주관적인 평가와 인지를 조사해 왔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1976). 최근에 오면서, 주관적인 평가와 인지가 객관적인 조건보다 삶의 질을 더 많이 예측한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르면서,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학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삶의 질을 단일차원의 삶의 만족도로 이해할 때 이론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즉,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well-functioning)있는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Ryff & Keyes, 1999). 따라서, 선행 연구들은 개인이 평가하는 심리적 복지감이 다양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보았고, Ryff(1989)는 좋은 삶 혹은 바람직한 삶에 관한 임상, 상담, 그리고 성인기 발달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이 6개의 하위 차원(자율감, 목적감, 성숙, 통제감, 자아 존중감, 타인과의 관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 차원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는가 여부는 개인이 속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성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개별 하위 차원의 중요도나 취약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령에 따라 각각의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 차원의 발달 수준은 그 속도나 정도에서 차이가 관찰된다(Keyes & Ryff, 1998). 더욱이 문화 간 비교를 시도한 연구들은 개별 문화권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의 구성 요인이나 중요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Ryff, Lee와 Na(1993)의 연구를 보게 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반면에, 서구와 같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문화권에서는 개인적 목표와 성취, 자율성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심리적 복지감이 사회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동시에, 각 사회·문화 체계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이루는 구성 요인이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를 확인하고,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문항들이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설명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1989)의 구조와 각 문항들이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중·장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가 Ryff(1989)의 심리적 복지감 모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그리

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전시킨 척도가 한국 중·장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 나라 중·장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를 살펴보고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해 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고찰

기존연구 경향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이 중년기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동안 심리적 복지감, 특히 중년기 심리적 복지감은 삶의 질을 살펴보는 다른 지표나 측정 도구에 밀려 크게 활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Baltes와 Baltes(1990)는 심리적 복지감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적지만, 중년기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관심이 이미 다양한 연구 전통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 세 개의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의미와 중요도가 부각되었다고 지적한다.

Baltes 와 Baltes(1990)가 언급한 세 가지 연구 전통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노년학 분야이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관련 연구들은 노년기의 건강 및 의존성, 생활의 질 등이 중년기의 삶의 모습, 생활양식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Moen & Wethington, 1999; Willis & Reid, 1999), 때문에 성공적 중년기 발달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은 미래 노인인구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는 심리적 복지감의 발달적인 속

성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다. 두 번째는 대규모의 조사 자료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관련 연구들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삶의 만족감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각 시기별 삶의 경험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연령의 연속적·선형적인 속성에 초점을 두면서 “중년기”라는 시기적인 특이성과 삶의 질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탐색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세 번째는 삶의 경험을 주제로 한 연구들로 이들은 중년기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과 가족을 비롯한 다중 역할 수행, 다양한 생활사건 관련된 연구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중년기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이 초래하는 심리적 반응에 대한 관심이 여러 연구 분야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전통에서 중년기 심리적인 복지감의 중요성이나 연구 가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년의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이나 구성, 그리고 도구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구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심리적인 복지감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소개되었고, 그에 대한 활용도와 검증 작업 그리고 최근에는 재평가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된다.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적극적으로 변안·사용하는 노력도 많지 않았고, 이를 한국적인 특성에 맞게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년기 심리적 복지감 척도구조와 개발을 위해 기존 서구의 성인 및 노년기 발달 연구들이 주로 사용해온 Ryff

(1989)의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척도의 적합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구조와 각 문항들이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구성

Ryff(1989)는 개인이 불안이나 우울증, 다른 형태의 심리적 병리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긍정적인 정서와 경험에 바탕을 둔 심리적 복지감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Ryff(1989)는 기존의 여러 심리학 이론들(Allport, 1961; Burhler, 1935; Erikson, 1959; Jung, 1933; Maslow, 1968; Neugarten, 1968, 1973; Rogers, 1961; Ryff 1995 에서 재인용)에서 설명하는 긍정적인 심리 기능의 특성들을 통합하여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를 개념화하였다. Maslow(1968)의 자아성취감(self-actualization), Rogers(1961)의 기능적인 인간에 대한 기술, Jung의 개체화론, Allport (1961)의 성숙(maturity), Erickson(1959)의 성인기 발달 과업 그리고 Neugarten(1968, 1973)의 성격 변화와 노년기 삶의 변화 개념을 바탕으로 심리적 복지감 척도 구성하였다(Keyes & Ryff, 1999). 기존에는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보기 위해 행복감(happiness)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등 단일 문항이 이용되어 왔는데, 그에 비해 심리적 복지감은 한 가지 개념으로 측정될 수 없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자율성, 환경 통제력, 자기수용, 삶의 목적, 성숙, 타인과의 관계라는 6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Keyes & Ryff, 1999; Ryff, 1989). Ryff(1989)의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 척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부정적이거나 복잡한 모습까지도 인정하는 것으로, 자아 실현이나 성숙의 특성들을 반영한다. 또한 자신의 현재 모습뿐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수용하며,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타인과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인류에 대한 감정이입과 애정을 가지며 친밀감(intimacy)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지도(generativity)를 하는 것이다.

자율성 (autonomy)

자기결정, 독립심,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 통제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규율들에서 자유를 느끼며, 자기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의 통제력 (environmental mastery)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거나 창조하는 것이다. 심리적, 정신적 활동들을 통해 환경을 창조적으로 변화하며, 주변의 기회들에서 장점들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삶의 목적 (purpose in life)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잘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성장 (personal growth)

자신의 잠재력을 의식하고 성장을 위한 도전

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경험에 개방되어 있으며, 성장의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가 기존의 정신 건강 및 복지감 척도들, 이를테면, 자존감, 우울감,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러한 기존 개념들을 포함하는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타당도 검증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Ryff의 심리적 복지감 6개 차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심리적 반응과 안녕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성격 특성을 잘 나타내고 기존의 우울감이나 생활만족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없었던 심리적 복지감의 다른 영역들을 설득력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yff & Burton, 1996; Showers & Ryff, 1996). 또한 6개의 개별 하위 차원과 심리적 복지감이라는 큰 개념과의 관계가 타당하다는 것은 Ryff와 Keyes(1995)의 연구에서 확증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문항들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어(Ryff, 1989) 내적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활용과 문화적 차이

이상에서 제시한 Ryff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개념을 잘 설명하는 동시에 다양한 발달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발전시킨 척도로 미국 내 성인기 복지감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척도가 얼마만큼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Ryff가 제시한 여섯 개의 하위차원들이 한국인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비교하는 연구의 결과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Ryff의 척도가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를 얼마만큼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심리적 또는 인지적 측정도구들을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Van de Vijver(2003)는 국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WISC-III를 사용하는데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번역 상 문제들을 고려한 측정도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번역을 할 때 구조적 등가성(structural equivalence), 측정단위의 등가성(measurement unit equivalence), 그리고 단계의 등가성(scalar equivale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Van de Vijver(2003)의 연구가 아동들의 인지능력 측정도구를 예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측정도구의 번역상의 문제들은 다른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의 사용 시에도 요구된다. Lambert 등도(2003)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결과를 심리측정학적인 특성이나 구조가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다. 또한 Diener, Oishi, 그리고 Lucas(2003)는 주관적 복지감 측정도구를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할 때, 반응 시 조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예. social desirability)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서구권 문화적 배경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비서구권 문화에서 사용할 때 타당도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대표적인 비교 문화 연구인 Ryff, Lee, 와 Na(1993)의 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리적 복지감의 총합에서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평균

점수가 미국인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다른 하위 차원들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미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하위 차원에서는 성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Ryff와 그의 동료들은(1993) 문화권마다 정의하는 “자아개념”의 차이 그리고 발달 목표라는 문화적 가치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물론 이 연구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공식을 이용한 연구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문항들의 변별력이 다른 상태에서 각 문항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내리는 결론이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관찰된 차이를 문화권의 가치가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의 차이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인과 미국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의 구성의 차이,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적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 소수의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김혜원·김명소, 2000; 김명소·김혜원·차경호, 2001)들은 Ryff(1989)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확장적 요인 분석을 통해 Ryff(1989)의 척도가 한국의 중장년층 심리적 복지감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활용도나 적합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소수 선행의 연구들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는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한점이 발견된다. 첫째, 척도의 구성 및 적합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표본의 대표성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제한된 지역의 한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확장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심리적 복지감 6개 차원이 한국인들에게서 동일하게 관찰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그들이 사용한 모델이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잘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남아있다. 실제로, 김혜원과 김명소(2000)의 연구나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관찰되는 6개요인 내에는 아이겐 수치가 매우 낮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관찰할 수 있어서 6개의 하위 차원으로 조직된 척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때문에, 확장적 요인 분석을 통해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개별 문항이 주는 정보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주는 문항을 선별하는 등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확장적 요인 분석과 문항 선별 분석을 통해 Ryff 심리적 복지감 모델(1989)이 성인들의 자료와 잘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성인들에게 맞는 심리적 복지감 구조와 문항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공적인 중년기 발달요인 탐색: 정신건강 및 일/가족 라이프코스의 한미간 비교 연구(한경혜 외, 2001)’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30세부터 60세에 해당하는 1,666명의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48.5%로 가장 많았고, 총수입은

200-300만원대가 가장 높은 비율(34.9%)을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성인들의 비율(90.2%)이 없는 성인들보다 많았고, 역시 직업이 있는 성인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95.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확증적 요인 분석과 문항 선별 분석을 통해 Ryff 심리적 복지감 모델(1989)이 성인들의 자료와 잘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성인들에게 맞는 심리적 복지감 구조와 문항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측정도구

Ryff(1989)가 고안한 심리적 복지감 (Psychological Well-being)의 여섯 개의 하위차원들을 한국말로 번역하였고 각각의 차원들을 구분하여, 자기수용, 타인과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그리고 개인의 성장 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Ryff(1989)가 처음 고안한 심리적 복지감은 각 차원 당 약 80개씩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후 연구들에서는 (Ryff & Keyes, 1995; Keyes & Ryff, 1998) 각 차원 당 3개씩 총 18개의 문항들을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18개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방향이 다른 문항들은 recode를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요인분석은 크게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과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명확한 모델 없이 특징

들과 관계들을 찾아내는 것인 반면, 확증적 요인 분석은 자료의 구조에 대한 기존의 정보들에 근거한 모델을 확인하는 것이다(Tabachnick & Fidell, 1996). Ryff와 Keyes(1995)의 연구나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등은 심리적 복지감 구조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보여준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모델이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잘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yff의 심리적 복지감 모델이 한국성인들의 자료와 잘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증적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한국성인들에게 맞는 심리적 복지감 구조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trait)들과 문항의 반응(response)의 수학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각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개개의 문항별로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특성수준을 구별하고 척도의 오류의 양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다른 그룹의 비슷한 특성들을 찾아내는 장점이 있으며, 주어진 요인(factor)내에서의 각 문항들의 모수(parameter)들을 테스트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문항들이 동일한 측정모수를 가지고 있다면 측정하는 그 특성이 동일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De Ayala, 1993; Mellenbergh, 1996; Weiss, 1995).

IRT 모델은 척도의 계발과 타당도를 증명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 양자선택이거나 또는 Likert scale같이 여러 선택 사항이 있는 척도 모두에 다 적용할 수 있다. IRT 모델에서는 잠재적인(latent) 특성들을 θ 로 표현하며, θ 의 범위는 -3에서 +3 (Embretson & Reise, 2000)으로 표현한다. 심리측정학에서는 X축에 Z점수를 그리고 응답자가 문항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1666)

변수	구분		변수	구분	
성별	남자	838(50.3%)	직업유무	직업있음	1586(95.2%)
	여자	828(49.7%)		직업없음	80(4.8%)
연령	30대	684(41.1%)	총수입	100만원 미만	117(7.2%)
	40대	523(31.4%)		100-200만원	475(29.1%)
	50대	455(27.3%)		200-300만원	571(34.9%)
	60대	4(0.2%)		300-400만원	285(17.5%)
				400-500만원	98(6.0%)
				500만원 이상	86(5.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14(6.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03(90.2%)
	중학교 졸업	181(10.9%)		배우자 없음	163(9.8%)
	고등학교 졸업	808(48.5%)			
	전문대 이상	560(33.6%)			

에 다르게 대답하는 가능성이 θ 수준과 맞추어 나타낸다. 각 문항의 모수인 b_{jk} 모수는 X축에 위치하며 높은 모수치는 높은 θ 수준을 의미한다. a_{jk} 모수는 0부터 3까지에 주로 위치하며 변별모수라고 한다. a_{jk} 모수가 클수록 각각 다른 특성들을 더 잘 구별해내는 것으로 해석한다(Embretson & Reise, 2000).

각 문항의 선택범주가 b_{jk} 의 숫자를 결정하는데, 가능한 선택범주-1이 b_{jk} 의 숫자가 된다(Embretson & Reise, 2000). 예를 들어, 5점척도 문항인 경우는 4개(5-1)의 b_{jk} 가 존재한다.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7점척도를 사용하였으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4개의 b_{jk} 가 존재한다. 각 응답자가 특정한 선택범주에 응답할 가능성은 b_{jk} 로부터 계산되어지며 각 문항의 결과를 나타내는 선은 문항특징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 ICC)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각 심리적 복지감의 a_{jk} 와 b_{jk} 모수로 만들어진 θ 는 X축에 그리고 각 문항의 선택항목의 가능성들은 Y축에 나타난다. 마지막으

로 각 문항의 정보의 양과 θ 수준은 문항정보곡선(item information curve, IIC)에서 알 수 있으며, 심리적 복지감의 각 하위차원들의 정보는 테스트 정보곡선(test information curve, TIC)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각 하위차원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살펴보고, 각 문항들이 각각의 하위차원들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이용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발전된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개발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의 분석은 다양한 통계프로그램을 각각의 연구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우선 SPSS Window

10.0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들을 파악하는 기술통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기존의 모델과 한국성인 자료간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4.0을 이용하였으며,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각 문항들의 정보의 양과 모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MULTILOG 7.03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Ryff의 구조와 한국 중년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 중년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Ryff의 심리적 복지감의 모델을 가지고 확증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증적 요인분석은 Ryff가 제시하는 기존의 모델들의 자료와 부합도를 테스트하는데 사용되어 졌다.

한편, 카이제르 점수는 모델부합도를 측정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사용해온 통계방법이지만 연구대상의 사이즈가 큰 경우 민감하여 (Schumacker & Lomax, 1996), 모델이 자료와 잘 부합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게 가설을 기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사용하여 모델의 부합도를 살펴보았다. TLI와 CFI는 .90보다 클 경우를 모델과 자료가 잘 부합되는 것으로 그리고 .80과 .90 사이일 경우는 적당하게 부합된다고 간주한다(Vandenberg & Lance, 2000).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것으로 그리고 .05와 .08 사이이면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Steiger, 1990).

본 연구에서는 확증적 요인 분석을 위해 세 가지 모델을 구성·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인 비위계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은 각 여섯 개의 하위 차원들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전체 응답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이 모델은 여섯 개의 잠재변인(latent variable)들과 각 변인들에 속한 세 개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Ryff의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해주며, 김명소 등의(2001) 연구에서 6개요인 모델과 가장 유사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차 순서적 모델은 심리적 복지감이라는 잠재적 변인과 여섯 개의 각 하위차원들, 그리고 각 하위차원에 속한 문항들 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차원적 모델은 하나의 심리적 복지감의 잠재적 변인과 각 문항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각 여섯 개의 하위 차원들간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표 2>참조).

<표 2>의 결과를 보게 되면, 한국인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는 Ryff가 제시한 구조와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Ryff가 제시한 심리적 복지감 모델들의 모델부합도(카이제르 점수, TLI, CFI, 와 RMSEA)의 점수들이 모두 낮게 나와, 한국 중년기 성인의 자료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비위계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이 가장 수용할만한 모델 부합도를 보였다. 이는 Ryff와 Keyes(1995)의 연구에서 비위계적 여섯 차원 모델의 부합도가 가장 수용할 만 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김명소 등 (200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섯 개의 잠재변인들과 각 문항들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위계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 문항반응 이론을 사용하여 각 문항들의 정보의 양을 측정하였다.

표. 2 심리적 복지감의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델 부합도

모델들	Ns	Chi-Square (df)	TLI	CFI	RMSEA
기존의 심리적 복지감 모델들					
비위계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	1666	1507.23 (120)	.67	.74	.08
이차순서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	1666	1585.29 (129)	.68	.73	.08
단차원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	1666	2480.25 (135)	.51	.57	.10
IRT 와 CFA 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					
다차원적 네요인 모델	1666	67.26 (14)	.95	.97	.05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정보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18문항들이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복지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은 각 요인들의 구조에 민감한데, 이는 각 문항들이 속해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위계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이 가장 수용할 만한 모델 부합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모델 구조를 따라 여섯개의 하위차원들과 각각의 문항들의 관계를 기초로 a_{jk} 와 b_{jk} 모수, 그리고 문항정보곡선(item information curve, IIC)을 이용하여 각 문항들의 정보의 양을 추정하였다.

<표 3>에 각 문항들의 a_{jk} 와 b_{jk} 모수들이 제시되었고, <그림 1>에는 각 문항들의 정보의 양이 나타나 있다. <표 3>에 나타난 모수들과 문항의 정보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0.5 이하의 a 모수를 갖는 문항들은 문항정보곡선이 0.1이나 0.2 이하를 나타낸다. a 모수가 0.5 이상 1 이하인 경우에 문항정보곡선은 0.2 이상 0.5 이하의 수준을 보이며, a 모수가 1이나 1.5 이상인 경우에는 0.5 이상의 정보수준곡선을 나타낸다. 정보의 양은 문항정보곡선으로 결정하는데 각 문항의 정보가 0.5에서 1이상인 경우는 정보의 양을 많이

제공하는 좋은 (good) 문항으로 구분하고, 0.1에서 0.5인 경우는 보통의 (mediocre)문항으로, 그리고 0.1이하인 경우는 불충분한 (poor) 문항으로 구분한다. b 모수가 4에서 +4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대개 좋은 정보의 수준을 보여주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정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율성의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편이다” 문항은 a 모수가 2.94로 3과 +3의 범위 안에 있으며 b 모수들 역시 -4에서 +4의 범위 안에 있다(<표 3>을 참조). 이 문항의 정보문항곡선은 2.0을 넘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1), 한국 중년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중 자율성 차원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하위차원별로 정보의 수준을 살펴보면, 자율성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편이다”와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내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문항들은 좋은 정보의 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따르는 편이다” 문항은 정보의 양이 불충분하였다. 자기수용성의 경우는 “나는 내 성격을 대체로 좋아한다”와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문항들은 보통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만족한다” 문항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한 문항만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장은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배움과 변화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었다”와 “나는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문항들은 좋은 정보의 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내 생활을 크게 바꾸거나 고치고 싶지 않다” 문항은 정보의 양이 불충분하였다. 삶의 목적은 “나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와 “나는 그날그날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문항들은 좋은 정보의 양을 제공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한 편이다” 문항은 정보의 양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통제력은 “매일의 생활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문항은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는 계획성 있게 사는 편이다”와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는 편이다” 문항들은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긍정적 관계 차원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와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문항들은 보통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나는 가깝거나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다” 문항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한 문항만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자기 수용성과 타인과의 관계 차원들을 좋은 정보의 문항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자율성, 개인성장, 삶의 목적, 그리고 환경 통제력 차원들은 양질의 문항들을 두개씩 가지고 있었다. 18개의 심리적 복지감 문항들 중 10개의 문항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4개의 문항들이 중간정도의 정보를, 그리고 4개의 문항들이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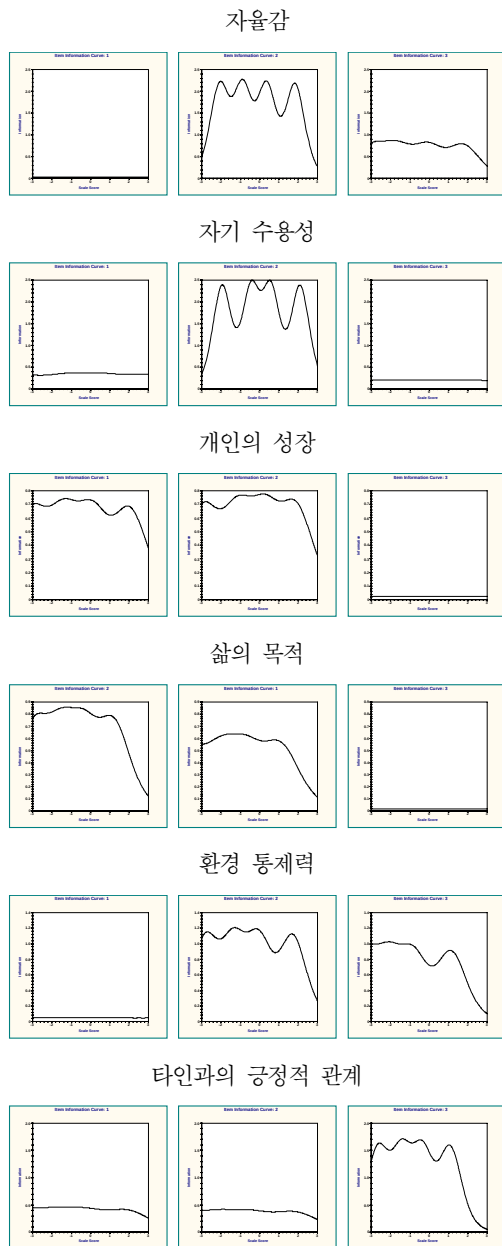


그림 1. 심리적 복지감 각 문항들의 정보수준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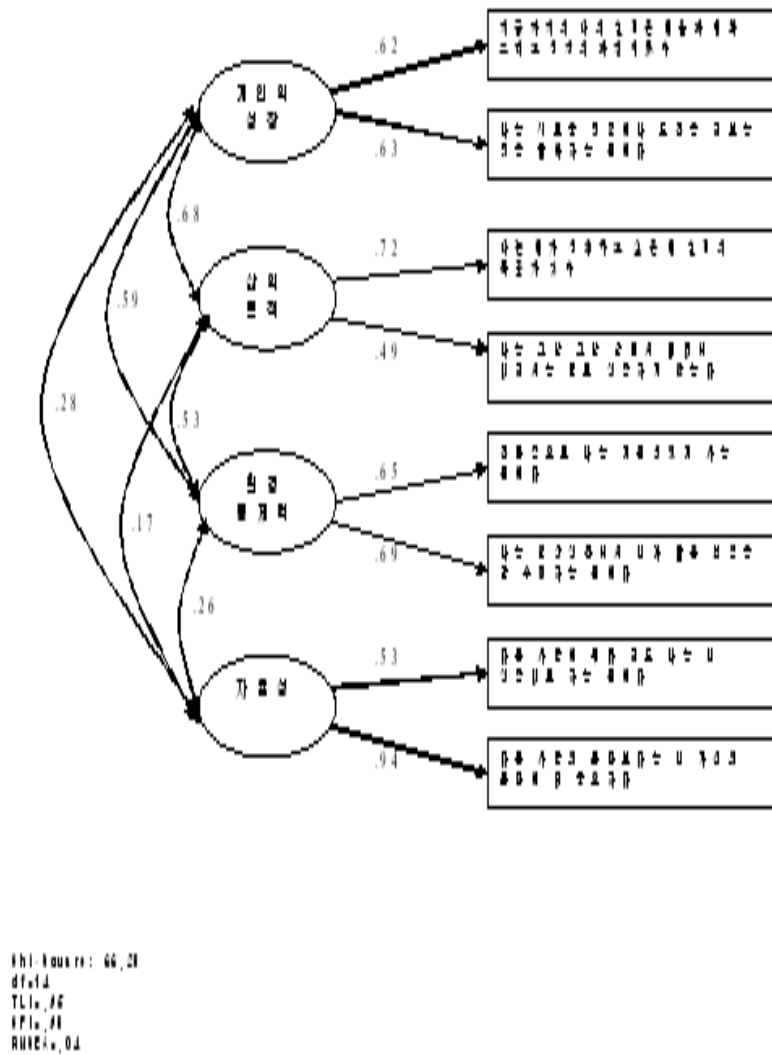


그림 2. IRT 와 CFA에 의해 만들어 낸 모델

한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

한국 중년기 성인들에게 맞는 복지감의 구조를 찾아내기 위하여 심리적 복지감의 각 차원에 좋은 정보를 주는 10개의 문항들만을 가지고 확장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6개의 하위차원들 중 자아성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차원들

은 양질의 문항들이 하나씩밖에 없으므로 확장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제외한 자아성, 개인의 성장, 삶의 목적, 그리고 환경 통제력의 네 가지 차원들의 8문항들만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확장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2>에 나타난 대로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해 양질

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항들로만 이루어진 4차원 8문항 모델은 한국 중년성인 자료와 높은 부합도를 보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를 찾아내고 Ryff 척도의 문항들 중 한국인들의 복지감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문항들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연구결과 Ryff가 제시한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는 한국 성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차원을 그대로 한국 중년들에게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Ryff척도를 이용하여 한국 중년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정보의 양을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화한 한국 중년의 심리적 복지감은 네개 차원 8개 문항 모델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겠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Ryff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는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자료와 부합도가 높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6개 하위 차원을 가진 Ryff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가 한국 성인 남녀에게 비교적 잘 부합한다고 밝힌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6개 차원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 모델의 모델 부합도가 높지 않았고, 문항 반응 분석으로 수용할 만한 문항을 선별 한 후의 심리적 복지감 모델은 4개의 하위 차원을 갖는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6개 하위 차원의 모델부합도를 비교한 지수에서 본 연구와 기존 연구는 차이가 있었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는

GFI, AGFI, NFI등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본대상의 수에 상대적으로 덜 제한을 받는 TLI 와 CFI를 사용하여 더 엄격한 기준의 모델부합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지수 사용의 차이가 모델의 부합도 여부에서 다른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기존 국내 연구들은 선택된 모델의 타당도나 문항의 신뢰도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 문항 반응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정 문항에서 한국인들의 반응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모델 선택과 함께,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yff의 모델이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자료와 잘 부합되지 않는 본 연구의 결과는 Lambert등이 (2003) 심리적 요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Diner 등이(2003) 주관적 복지감 측정도구를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서구권 문화적 배경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비서구권 문화에서 사용할 때, 타당도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록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가 다차원적인 측면을 접근 할 수 있고 여러 심리학적 이론들에 근거하여 발달된 척도라 하더라도,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함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각 문항들의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정보의 양을 측정된 결과 전체 18개의 문항들 중 단지 10개만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성의 “나는 내 성격을 대체로 좋아한다” 와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문항이나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와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들은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지금까지 Ryff (1989)의 척도를 사용한 문화권 비교 연구에서 밝힌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들의 민감도가 비서구문화권이 서구에 비해 높았다는 결론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 관련 문항들이 심리적 복지감이라는 전체 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낮기 때문에,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한 차원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비교연구의 결과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문항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점수의 차이만으로 서구와 차이를 보이는 한국적 특징으로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들이 관찰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척도의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항에 대한 이해의 오류와 문항의 내용이 개별 문화권에서 가지는 중요도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항과 그렇지 못한 문항들을 함께 사용할 경우 척도의 신뢰도나 타당도는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 6개 차원의 18문항을 그대로 종속변수로 사용한 연구(김경민, 한경혜, 2004; 차승은, 한경혜, 2003)들은 신뢰도가 높지 않은 점, 독립변수와 관련성을 분석할 때 모델 부합도가 높지 않았거나, 예측 변수를 찾아내는데 어려운 점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할 때, 척도가 가지는 구조의 적합성은

물론, 각 문항의 정보의 양을 기초로 하여 척도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심리적 복지감 구조의 차이나 문항이 주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앞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만 설명하였는데, 다른 한편에서 문항 변안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an de Vijver(2003)는 문항의 번역시 구조적, 측정단위 그리고 단계의 세 가지 등가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척도를 번안할 때, 반복적인 타당도와 신뢰성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문항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번안의 과정에서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거나, 분석 단위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경우 특정 문항에서 서구와는 매우 다르게 해석되는 문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한 편이다(Some times I feel, as if I've done all there is to do in life)”의 문항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문항은 서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의 목적감 차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의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이 문항이 다른 긍정적인 문항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한편, 부정적인 문항들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서, 응답자들에게 이 문항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조망의 차이라는 문화적 차이보다는 번안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뜻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즉 Van de Vijver(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번역의 과정에서 문항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취지가 손상된 측면이 있다. 이 문항의 오류가 심리적 복지감의 전체 신뢰도를 크게 낮추거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지는 않지

만,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항이 포함되었을 때 척도의 등가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는데 있어서 신뢰도 및 타당도의 문제와 함께, 내용과 분석단위의 등가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등가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논의도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Ryff(1989)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각 문항의 정보의 양을 근거로 한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척도를 사용할 때 척도가 가지는 제한점을 고려해보건대,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심리적 복지감 구조에 대한 후속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적 복지감의 네개 차원(삶의 목적감, 성숙, 통제성 그리고 자율성)이 한국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대표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이외에 어떠한 요인이 한국인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서구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다양한 심리적 복지감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충분한 정보를 주는 문항들을 탐색하고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심리복지구조를 발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Keyes와 Ryff (1998)의 심리적 복지감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를 측정하는데 있어 Ryff가 개발한

척도의 18문항들을 다 사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개한 문항반응이론이 컴퓨터 적용 테스트를 개발하는데 근간이 되는 연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기존 지면 테스트의 한계를 벗어나 연구자와 응답자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각 개인의 수준에 맞는 컴퓨터 베이스된 척도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확증하는데는 연구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의 중년 성인기 복지감 연구 분야에서 간과하였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한 한국인 대상의 연구는 전무하므로 심리정신 측정학의 척도개발의 한 방법론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소, 김희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윤정 (2000). 사회적지지 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9).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

- 학, 19(1), 61-76.
-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 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이혜자, 성명옥, 신윤아 (2003).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127-150.
- 한경혜, 이정화, Ryff, C., Marks, N. (2001). 성공적인 중년기 발달요인 탐색: 정신건강 및 일/가족 라이프코스의 한미간 비교연구.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 결과보고서*.
- 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yff, C., Marks, N. (2002).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2(2), 209-225.
- Allport, G. W. (1961). *Patterns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Y: Plenum.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De Ayala, R. J. (1993). An Introduction to Polytomous Item Response Theory Model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5, 172-89.
- Embretson, S. E., & Reise, S. P. (2000). *Item response theory for psychologis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eyes, C. L. M., & Ryff, C. D. (1998).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ocial structural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In D. P. McAdams & E. de St. Aubin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pp. 227-264).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Keyes, C. L. M., & Ryff, C. D. (1999).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In Willis, S.L. & Reid, J.D.(eds). *Life in the middle* (pp 161-180).CA: Academic Press.
- Lambert, M.C., Schmitt, N., Samms-Vaughan, M.E., An, J.S., Fairclough, M., & Nutter C. (2003). Is it prudent to administer all items for each Child behavior Checklist Syndrome? Evaluat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Youth Self-Report dimensions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Psychological Assessment*, 15, 550-568.
- Marmot, M., Ryff, C. D, Bumpass, L. L., & Shipley, M. (1997).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Next questions and converging evid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44(6), 901-910.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New York: Van Nostrand.
- Mellenbergh, G. (1996). Measurement precision in test score and item response models. *Psychological Methods*, 1, 293-299.
- Oxford, R. M & Daniel, L. G. (2001). Basic cross-validation: Using the "holdout" method to assess the generalizability of results, *Research in the School*, 8(1), 83-89.
- Ryff, C. D. & Burton, S.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 Psychosomatics*, 65(1), 14-23.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99-104.
- Ryff, C., Lee, Y. H., & Na, K. C. (1993). Through the lens of culture: Psychological well-being at midlif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New Orleans.
-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howers, C., & Ryff, C. D. (1996). Self-differentiation and well-being in a life transi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5), 448-460.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Harper Collins.
-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 4-69.
- Weiss, D. J. (1995). Improving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ment with item response theory and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In D. J. Lubinski, & R. V. Dawis (Eds.),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human behavior: New concepts, methods, and findings* (pp.49-79). CA: Davies-Black Publishing.

Psychological well-being structure and item information of Korean adults

Jeong-shin An

Gyoung-hae Han

Seung-eun Cha

Center for Family Policy & Research
i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psychological well-being measurements which is developed by Carol Ryff (1989), for Korean adults, in terms of the structures and amounts of information. The data came from 'Exploring Successful Developmental Factors of Middle Aged' with 1,666 Korean adults aged 30s to 60s. Firs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ggested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s did not fit well with Korean middle aged adults. Second, item response theory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variance and limited information for most items for Korean. Only ten among eighteen items provides good amounts of inform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adults. Third, only four sub-dimensions of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works for Korean adults' well-being struc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measurement including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ults is needed rather than using the measurement which developed for U.S. adults without checking validity.

Keywords : psychological well-be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 response theory